

제5회 신행수기 당선작(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선지식의 은혜

김 우 상 <강원도 화천을 수색대대 의무대>

의 예과 2학년 때의 일이다. 일상의 삶이 지루함과 끊임없는 번민의 연속이었다. 사회에 대한 부적응으로 연일 술과 야정을 찾아 허덕이는 방향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에 참석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참석반을 주관하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신선함을 느꼈고, 미의 감각에도 새로운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도 생겨났다.

참석반에서는 1주일에 50분 참선과 10분 교수님의 법문이 있었으며 서로의 의문과 느낌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처음에는 참선을 마치고 나오면서 하늘에 떠있는 흰구름을 보며 "할 든 구름 같은 말씀만 하시네"하고 의문을 품으면서도 세상이 좀 더 맑고 신선하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다.

처음으로 반가부좌로 앉으니까 무릎, 발목, 골반까지 통증이 와서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죽비를 받고 나면 마음에 알 수 없는 맑음과 기쁨이 솟아났다. 막상 참선 시간전에는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심으로 참선한 학기를 무사히 마쳤다.

그해 겨울방학 동안 박선자 교수님의 주선으로 곡성 성문사에서 약 10일 정도 생활하게 되었다. 주지 스님께서는 내게 너무도 감동적인 인상을 주었다. 수형자다운 맑은 얼굴과 정기어린 눈은 참다운 공부란 한다는 강한 자부심과 자존감 속에 깃든 힘과 청량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껏 여는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무척이나 해맑은 열

굴이었다.

나 역시도 의학도로서 강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스님의 단호한 말씀과 부처님의 원만덕상을 보는 듯한 수려한 얼굴에서 그만 나 자신이 초라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절 집에서의 생활은 단조롭고 신선함이 동시에 풀려 왔지만 속세에 대한 그리움으로 2주일을 예정하고 갔다가 10일째 되는 날 교수님께 먼저 하산해야겠다는 말을 남긴 채 다시 휘황 찬란한 속세로 돌아왔다. 속세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다시 마음 헌구석에서는 탈속한 삶에 대한 그리움이 짝박는 것이었다. 수행을 하고픈 강한 열망이 솟아났다.

본과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수업을 빼먹어 가며 참석반에 다니고 있던 어느 날 박선자 교수께서 청화 큰스님을 친견할 시간이 있는지를 물었다. 나는 대를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큰 스님을 친견하는 전날이었다. 꿈을 꾸는데 어린 동자의 모습이 보였다. 발가벗은 채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동자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었으며, 그 꿈을 통해서 무너지는 업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큰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상문사 조선당 토굴에 닿았을 때 나는 그만 감탄하고 말았다. 마치 극락세계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이런 곳에서 살면 마음이 맑아질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큰 스님을 친견하는 방에는 부처님의 고행상이 봉안되어 있었

다. 또 한 번의 경건함이 느껴졌다. 청화 큰스님의 모습은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자상하면서도 넘치는 자비심과 경건함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었다.

아! 스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으며,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방식이 하나 모자랐는데 큰 스님께서서는 자기의 경험담과 방식을 신도에게 건네주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높이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존경과 경경을 받을만한 인품이란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감동이 저절로 들었다.

한 점 티없이 맑은 큰 스님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거뻛어 버려졌다. 자신의 진실에 눈뜨게 되었던 것이다. 친견 전날 꿈속에서 보았던 자신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가릴 것도 속일 것도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듯해 참회가 있었으며 동시에 축복과 감사의 마음이 들어 결국엔 환희 그 자체가 마음속에 가득 차다.

30분이 넘도록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하셨는데 삼매에 오랫동안 머물면 전생도 흔히 내다 볼 수 있으며 내생도 윈

히 볼 수 있다고 하셨다. 그것은 진정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임에도 자신이 그러한 신봉을 한다는 우월감은 찾을 수가 없었으며, 당신이 보시는 안목이 진리에서 나오는 것임에도 그러한 상을 전혀 보이지 않으시는 점이 또 감동을 주었다.

상이 없는 모습이란 것이 바로 청화 스님 같은 모습이구나 하는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되었다.

친견을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지만 나오는 길목까지 직접 배웅을 나오시는 스님의 모습에서 아낌없는 자상한 배려를 볼 수 있었다.

그러고는 곧 청화스님께서는 미국으로 건너가셨다. 금강산원에서 3년 결사를 마치고 돌아 오실 때까지 뵈지 못했는데 그 3년동안 아! 그리움의 의미를 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무수한 시인들이 노래한 그리움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리움의 의미를 진실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청화 스님에 대한 그리움은 진리에 대한 그리움이며



그림 · 이준석

큰스님 모습 떠올리기만 해도 모두 용서하고 수용하게 됐고 나와 더불어 하나임을 느꼈다

모습이구나! 하는 감동이 저절로 들었다.

스승에 대한 그리움이며 성자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푸른 하늘, 맑은 하늘을 볼 때마다 그속에 큰 스님의 모습이 어리고 마치 저 흰 구름사이에서 어느 때라도 큰 스님께서 나타날 것만 같은, 살아있는 그리움이었다.

그 친견 이후 나에게 변화가 왔다. '세상상행 보살도'를 실천하며 살겠다는 서원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성불의 그 날까지 큰 스님의 제자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기원하기에 이르렀으며 큰 스님께서 훌쩍 열반에 드시기전에 큰 스님결에서 영자생활이라고

마칠 수 있기를 발원하게 되었다. 청화 스님의 자애로우신 은혜가 나에게 영향을 끼쳐 나는 그동안의 모든 업장을 녹이고자 참회하고 또 참회했다.

아! 스님의 자비로우신 눈빛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 어찌 감히 불발을 집자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삼속에서 사소한 일들로 인해 들끓는 분노와 욕망이 생길 때면 그저 청화스님의 모습을 한 번 떠올리는 것만으로 넉넉해지고 그러한 감정에서 벗어나게 힘을 느끼게 된다. 모두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모두를 수용할 수 있게 됐으며 모두가 나와 더불어 하나임을

자신도 모르게 느끼게 되었다.

내 가슴에 구도의 불꽃을 피우신 스님은 나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정열을 불태워 주셨다. 문없는 문으로 인도하는 명쾌한 그 법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양식이 되었다. 참화스님께서 50년이 넘는 수행생활중 일종식(하루 한끼 먹는 것)과 오후불식을 생활화해 왔으며 늘지않는 장좌불와를 40년이 넘도록 수행해 오시면서 우리 불자들의 귀감이 되어 오셨다한다.

청화 큰스님과의 인연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수행내용 : 1999년도 (201호~251호)
 판 형 : 신문원형 그대로
 가 격 : 1권 65,000원 (발송비 5,000원 포함 - 직접 구입시 발송비 제외)
 입금구좌 :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023-25-0007-617 농민 053-01-227471 우체국 010041-0255243
 문 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대), 02)737-0090(총)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이천만 불자의 참대번지, 수행의 길잡이 ...

현대불교신문
1999년도 합본집 발간 (50부 한정판매)
 '94 ~ '99년 디지털 합본집 CD도 함께드립니다.

1999년도 한해 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의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큰스님 법문, 한국문화의 증추가 되는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99년도 합본집' 제5호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94년 창간호부터 1999년도 송년호까지 모든 기사와 보도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디지털 합본집 CD-ROM'을 증정합니다.

인터넷 마히몰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과 그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을 만나십시오』

☎ 02) 732-1522 (직)
 02) 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아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부처님의 교설을 열심히 공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불자들의 서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직통)/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매원 : 마하몰

마하 반야심경 봉축 조립등

<설치순서>
 1. 연등의 뒷부분을 조립한다.
 2. 연등의 아랫부분을 조립한다.
 3. 연등을 설치한다

■ 규격 : 폭28cm x 높이28cm
 ■ 초꽃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음표 포함, 탁송비 별도
 ■ 가격 : 1,84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60182호

마하 반야심경 봉축 점등

<설치순서>
 1. 점힌 상태의 연등을 편다.
 2. 내부에 접혀 있는 지지철봉을 누른다.
 3. 연등을 설치한다.

■ 규격 : 폭28cm x 높이28cm
 ■ 초꽃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음표 별도, 탁송비 별도
 ■ 가격 : 2,500원 (이음표 포함 2,60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79042호

이 연등은 재가불자들의 구매용이 아닙니다.